

선학원 관련  
종정예하 '시중'(示衆)

## “제적원, 설립정신 ‘위배’ 종단 종헌종법대로 해결”

종정예하, 선학원 관련 '시중'서 엄중 책임 언급

대한불교조계종(大韓佛敎曹溪宗)과 선학원(禪學院)은 그 뿌리가 하나입니다. 선학원 재단은 우리 선사(先師) 스님들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일제의 대처제도를 통한 파승가(破僧家)정책에 분개하여 뜻을 모아 정정승단(淸淨僧團) 회복과 선법선양(禪法宣揚)의 기치아래 설립된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선사(先師) 스님들은 헌신적인 정화불사(淨化佛事)와 간화선(看話禪) 수행가풍(修行家風)을 확립하였고, 마침내 정정승단인 조계종단(曹溪宗團)의 탄생과 더불어 불조(佛祖)의 법통(法統)을 잇는 정통성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러한 선사(先師) 스님들의 고귀한 뜻이 담긴 헌신이 있었기에, 한국 불교의 대표종단(代表宗團)이 될 수 있었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불교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은혜(恩惠) 입은 후학(後學)으로서 막물 뜻을 입고 조계종단에 뜻을 같이하지 않는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일 뿐입니다. 따라서 선학원 임원진의 제적원 제출은 선사(先師) 스님들의 선학원 설립정신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각 분원장과 그 도제들은 종도로서의 정체성 훼손을 크게 우려하며 혼란과 불안감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학원 이사회는 분원장과 그 도제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선학원 이사회는 선사(先師) 스님들의 뜻을 올바르게 받들고, 선학원 관련 스님들에게 오점이 생기지 않도록 살펴야 할 것입니다. 선사(先師) 스님들의 고귀한 헌신을 왜곡하고 대중의 공의(共議)를 가버어 여겨 살피지 않는다면, 이는 곧 파승가(破僧家)적 행위로 엄중한 책임이 함께 하리니 산승의 조언을 살펴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종단은 선학원 구성원이 한국불교와 종도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사(先師) 스님들의 선학원의 설립정신을 온전히 받들어, 종헌종법에 따라 제반 문제를 엄중하고 단호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니, 선학원의 모든 임원진 스님들께서는 마음을 잘 회향하여 종단과 더불어 뜻과 행보를 같이하여 선사(先師) 스님들의 선학원 설립정신인, 본 종의 종지(宗旨)인 부처님의 심인법(心印法)을 요달하여 세계만방에 선양하는 데 주역으로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불기2558년 7월 8일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법원

진제 조계종 종정예하가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 임원진의 제적원 제출과 관련 시중(示衆)을 발표하고 “선사 스님들의 선학원 설립정신을 거스른 행위”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진제 종정예하는 지난 9일 발표한 시중을 통해 “선학원 재단은 선사 스님들의 원력으로 이뤄진 것으로, 일제의 대처제도를 통한 파승가 정책에 분개해 뜻을 모아 정정승단 회복과 선법선양의 기치아래 설립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제 종정예하는 “선사 스님들의 헌신을 왜곡한다면, 이는 곧 파승가적 행위로 엄중한 책임이 함께 하리니 산승의 조언을 살펴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중앙종회(의장 항적스님)는 9일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

년과 4층 회의실에서 중앙종회 의장단·상임분과위원회 의장단·특별위원회 의장단과 집행부 선학원 대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 임원진 징계절차 착수

이날 회의에서는 제적원을 제출한 임원진에 대해 종헌·종법에 따른 징계절차에 착수하고 지역 분원장들을 대상으로 ‘법인관리법’ 설명회를 여는 등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도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총무부장 정만스님은 “현재 선학원에 등록된 사찰만 500여 곳으로 이 가운데 70%가 종단 스님으로 추정된다”면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등록 등 법적 테두리 내에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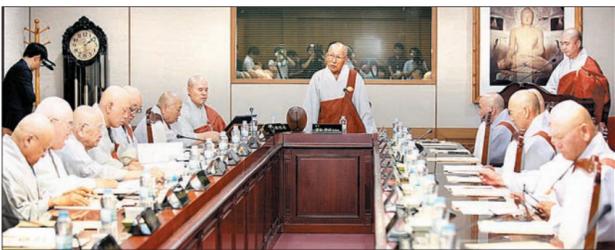
또한 중앙종회는 이날 연석회의

직후에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선학원 이사회 임원진에 대해 “종헌·종법 부정하고, 종도의 공의를 내던졌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종회는 입장문에서 “선학원 임원진 스님들은 선대 어른스님들께서 삼보정재로 이루어놓으신 것을 외면했다”면서 “때문에 선학원 임원진 스님들은 사익을 위해 선학원을 사유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종단 집행부는 선학원 임원진이 제출한 제적원에 대해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종헌·종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선학원 분원장 스님들과 도제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3면

허정철 기자 hjc@bulgyo.com



지난 10일 열린 제 46차 원로회의. 철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종헌개정안을 다시 중앙종회로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 원로회의 종헌개정안 인준 ‘부결’

### 중앙종회에 반려 비구니 초심호계 법규위 참여 보류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밀운스님)가 비구니 스님의 호계위원 참여를 골자로 한 개정안 등 제198회 중앙종회에서 통과된 종헌개정안 3건에 대해 ‘철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결시켰다.

원로회의는 지난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46차 원로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헌 개정안 처리

는 종헌 130조가 규정하는 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해야 하는 데도 만장일치 방식으로 처리한 것은 절차적 하자를 갖고 있어 원로회의가 다룰 수 없다”고 의견을 모으고 해당 안건을 중앙종회에 반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구니 스님의 초심호계위원·법규위원 참여는 보류됐다. 중앙종회는 조만간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부결된 안건을 다시 다루기 위한 임시회를 소집할 것인지 논의할 예정이다. 중앙종회위원 현근스님은 “지난 임시회에서 의욕적으로 처리된 안건이지만, 원로의원 스님들의 염려도 충분히

히 일리 있고,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이번에는 급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갖고 적법한 절차를 지켜 차기 종회에서는 반드시 인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원로회의는 이날 중앙종회에 스비구니 스님에 대한 갈마는 비구니 스님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원로의원 징계 시 원로회의의 2/3 이상 동의를 구할 것 △종정예하가 멸빈을 제외한 징계의 사면, 경감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는 권한 가운데 ‘멸빈자 제외’ 조항을 삭제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허정철 기자 hjc@bulgyo.com



불교와 개신교, 천도교 등 경가지역 7대 종교인들이 지난 11일 제2교구본사 용주사에서 ‘사람우선 생명존중 사회’를 서원하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제를 봉행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 “사람우선, 생명존중 사회 구현하자”

### 경기지역 7대 종교인 정조대왕 문화진흥원 2교구본사 용주사에서 세월호 희생자 추모제

“지난 4월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는 자본의 탐욕과 관료의 부패,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세월호 희생자들과 실종자, 유족들을 기억하면서 세월호 참사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경제성장이라는 무상에게 눈이 멀었던 세상을 생명 가치를 최우선에 두는 세상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제2교구본사 용주사와 경기종교인평화회의, 정조대왕문화진흥원이 지난 11일 용주사 효림당 앞마당에서 연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제의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이같이 서원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도 11명의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추모제는 불교와 개신교, 천도교 등 경가지역 7대 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고 사람이 우선되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길 서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추모제는 명종5다를 시작으로 헌향과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 헌화, 추모 종교의식, 추모사, 추모시 낭독, 희생자 유족대표 인사, 사람 중심 생명 존중 사회를 위한 결의문 낭독, 마음의 소리 제창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추모 종교의식에서는 불교와 개신교, 천도교 등이 자신의 종교의식을 통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실종자들의 빠른 귀환을 기원했다.

용주사 전강문종회 의장 정호스님(정조대왕문화진흥원 이사장)은 추모사에서 “우리의 삶은 일회적 삶이 아닌 윤회의 삶이다 보니 수많은 생을 통해 가족의 인연으로 만났고 또 다시 좋은 인연으로 만나기 마련”이라며 “유족들의 마음이 공명을 통해 희생자들에게 전해지는 만큼 희생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족이 먼저 평정심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추모사를 통해 “세월호 대참사는 사람과 생명, 안전보다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이 만들어낸 비극이자 기본을 망각하고 원칙을 저버린 우리에게 닥친 필연”이라면서 “이번에는

단 한명의 생명도 살려내지 못했다. 앞으로는 마지막 한명까지 귀하게 여기고 모두 구해낼 수 있는 안전하고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고 제언했다.

김병권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장은 희생자 유족 대표 인사를 통해 “이미 87일이 흘렀지만 아직도 11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많은 국민들이 함께 아파해주셔서 정말 고맙고 미안하기도 하다”면서 “세월호 참사가 헛되지 않길 바라며 안전한 나라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에 동참하며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추모제는 용주사 주지 직무대행 성직스님, 채수일 경기종교인평화회의 회장, 정정숙 천도교 교화단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채인석 화성시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용주사=박민익 기자 parkintak@bulgyo.com

■ 제18회 만해대상 수상자 4면 ■ 사상 첫 '불복장 시연회' 5면

[아생여당]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의 새로운 패밀리 브랜드입니다



템플스테이의 새로운 시작 -

# 대한민국 여러분 템플스테이 하세요

**아아**  
아아(我) 템플스테이 \_  
마음의 위리가 되어 평화로움을 경험합니다  
전북 김제 금산사, 충북 영동 반야사, 충북 보은 범주사, 경북 성주 심원사

**생생**  
생생(生) 템플스테이 \_  
무 생명들의 늘 푸른 건강을 선사합니다  
경남 신창 대원사, 전남 영암 도갑사, 강원 동해선화사, 경기 양평 용문사

**여여**  
여여(如) 템플스테이 \_  
회와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제안합니다  
전남 해남 미황사, 충남 예산 수덕사

**당당**  
당당(堂) 템플스테이 \_  
꿈을 찾아 자신감과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강원 양양 낙산사, 강원 인제 백담사, 경기 용인 법륜사